

장흥군, 다솜동지복지재단-광주여대와 7년째 봉사활동

광주여대 실내디자인학과 학생 26명 무더위 속에 집수리 봉사 활동

7가구에 도배·장판·마당 보수·벽화 등 생활 속 어려움·불편함 해소

장흥군 장평면 우산마을에서는 광주여대 실내디자인학과 학생 26명이 무더위 속에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다.

장흥군과 7년째 진행 중인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은 다솜동지복지재단의 공모사업비와 광주여대 실내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거어르신 등 7가구에 도배·장판, 창호, 처마 보수, 마당 보수, 벽화 등 생활 속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한

다.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봉사활동 시작 전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병용 마을이장은 “젊은 학생들이 마을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에너지가 어르신들께 힘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 덕분에 마을이 활기가 넘친다”며 “오늘 마을을 찾아와 격려해 주신 허상만 다솜동지복지재단 이사장님, 이선재 광주여자

대학교 총장님, 정종순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광주여대 박수민 학생 대표는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지만 어르신들께 생활 불편을 해결해드리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보람되고 기쁘다”며 “오늘은 할머니께 마당에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곧 장마가 오는데 할머니가 마당을 편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7년째 변함없이 장흥을 찾아 주신 광주여



대 실내디자인학과 학생들과 사 업비를 지원해 주신 다솜동지복 지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장흥군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신안군 지도읍지사협, ‘전등이 건네는 인사’ 특화사업 추진



신안군 지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가구를 방문해 스위치와 리모컨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등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스위치·리모컨 겸용 사용 전등교체 지원사업 추진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과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마을별, 분야별로 복지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현장에서 찾아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29세대에게 전등을 교체해 준 것이다.

지원사업을 받은 장애인 어르신은 “이른아침 누워서 전등을 켤때면 천정에서 밝고밝은 전등이 외로운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몸이 불편해서 전등을 켜고, 끄기가 힘들었는데, 리모컨으로 편하게 누워서 켜고, 끌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조지형 민간위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서비스를 받고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주 지도읍장은 “작지만 의미있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현장에서 찾아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순천시 낙안면, 복지자원 적극 발굴로 후원 연결 활발



순천시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최근 적극적인 복지자원 발굴 활동을 통해 지역 업체로부터 한우 떡갈비 15세트를 기탁받아 저소득 홀몸어르신 15세대에 전달했다.이번 후원 연계는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가 관내 업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자원 발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노력의 결실로, 더욱 의미가 있다.

낙안면 마중물보장협의체는 복지위기가구 및 복지자원 발굴 활동을 꾸준히 펼쳐 수년 전부터 지역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반찬 후원을 받아 관내 독거노인에게 매주 전달하고 있다.

15세대 한우 떡갈비 전달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희망드림(Dream) 꾸러미’를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반쪽반쪽 보급자리 사업·독거노인 가족 만들기 사업 등을 운영하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과 협업하여 해결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삼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중물보장협의체의 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이럴 때 일수록 협의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